‖ 절세위인의 명언 ‖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로 되고 민족대단결을 저애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가 저애하는가 하는데 따라 애국자와 매국노가 갈라지게 된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운명개척의 천하지대본이다.

단결된 민족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번영을 이룩할수 있지만 민족이 단합되지 못하고 흩어지면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족의 대단결문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근본문제로 나서며 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명백한 기준으로 된다.

외세의 강요에 의해 분렬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대단결을 떠나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각이한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동족사이에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앞세우며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면 언제 가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지난 70여년간의 민족분렬사가 남긴 쓰라린 교훈이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통일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될것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전 영 민

조국해방 70 돐기념 민족통일대회 (2015 년 8 월)

조국통일은 민족의 단합을 위한 투쟁

조국통일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다 아는것처럼 조국통일문제는 서로 련관되여있으며 상대적독자성을 가진 두가지 내용을 포괄하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가 민족외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이라면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민족내적인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분렬되여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간 북과 남사이에는 적지 않은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대결이 커갔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절반 땅을 타고앉은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실현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분렬주의세력을 내세워 단독《정부》를 조작하였으며 그들을 부추겨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이 전쟁으로 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였다.

전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 계속 틀고앉아 분렬주의세력을 부추겨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소동을 끊임없이 벌렸으며 저들의 식민지지배에 방해되는 통일애국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남조선의 력대 반통일세력들은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악법을 조작해내고 마구 휘둘러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처형하는 한편 《북진통일》,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민족대결책동에 광분하여왔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피줄과 언어가 같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면서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불신하고 대결하며 살아야 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하나의 민족이고 또 하나로 합쳐져야 살수 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이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초래된 사상과 제도, 정견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은 더욱 강렬하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결코 하나의 민족내부에서 서로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이 오래동안 헤여져 살면서 생겨난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지나온 력사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민족적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과정이 곧 통일에로 가는 과정이며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이 바로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단합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의 근본조건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나라의 분렬은 우리 겨레가 일시적으로 겪는 곡절이고 비운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겨레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하는것은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이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어떤 사회적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에게 있다.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이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보다 훨씬 더 큰것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이어오면서 형성된 민족의 공통성이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합한다면 능히 통일의 날을 앞당겨올수 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는 조선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단결하여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비록 어제날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오늘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반통일보수세력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의 격화는 민족적참화를 초래하기마련이다.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통일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장 인 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력사적로정

해외동포인사들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된 후 해외동포들 속에서는 민족단합의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공화국을 찾는 인사들이 늘어났다.

김성락목사

그러한 환경속에서 1981년 6월말 미국에 있는 《조국통일촉진회》 회장이며 《한국인교회련합회》 고문이였던 김성락목사가 평양에 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국사로 매우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그를 만나주시고 목사의 부친의 반일운동경력과 목사의 미국에서의 애국활동을 평가하시고 공화국의 건국력사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숭미사대주의의 해독성에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북남조선 전체 인민들이 자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고,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몇천년동안 한강토우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를 외세가 결코 둘로 갈라놓지 못한다고, 우리는 북과 남이 련합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목사는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돌아가서 미국국회 의원들과 부대통령에게 전달하며 해외에 있는 동포인사들과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비행장에서 스스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출발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북의 현실을 직접 보고 모든 오해를 깨끗이 풀었다고 하면서 《민족도 강산도 그 민족, 그 강산이되 오늘과 같이 놀라운 현실을 국토우에 가꾸어놓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주석은 하늘이 내신 위인이십니다.》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자기의 인생전환을 피력하는 진정어린 고백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평양을 다시 찾아온 김성락목사부부를 크나큰 은정과 믿음으로 대해주시고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통일위업에 이바지한 그의 공적을 평가하시여 조국통일상수상자 대렬에 세워주시였다.

《배달민족회》 회장이였던 최덕신선생도 평양행을 결심하면서 비로소 민족을 위하는 참다운 통일애국의 길에 자신을 세울수 있게 되였다.

최덕신선생

평안북도 의주가 고향인 그는 8.15전에 중국에서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당군대의 독립대대장(대령)을 하였으며 조선전쟁시기에는 남조선군 사단장, 군단장, 정전담판 《국군》대표, 전후에는 군단장, 외무부 장관, 서부도이칠란드대사, 1970년대초에는 《반공련맹》 리사장 등 《반공》일선에서 물러난적이 없는 사람이였다.

그후 《유신정권》과 결별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해외동포들의 공화국방문흐름을 타고 평양을 방문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늦게나마 통일애국의 옳바른 길을 찾아 평양을 방문한 그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의산최동오선생에 대하여 뜨겁게 회억하시였다. 그리고 민족앞에 머리를 들수 없고 선친을 위해 온갖 은정을 다 부어주신 주석님을 대할 면목이 없다고 말씀을 올리는 그에게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이고 지금 나라가 분렬이냐 통일이냐 하는 기로에 선 이때에 우리와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하여 한몫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큰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의 희생물이 되여서는 안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찬도 마련해주시고 우리모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고 하시면서 다음번에 올 때에는 부인과 함께 오라고 당부하시였다.

참으로 최덕신선생에게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은 《반공》으로 얼룩졌던 곡절많은 그의 운명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새봄을 안겨준 재생의 빛발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런 사랑과 은정속에서 그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공화국에 영주하여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불치의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곡절을 겪어온 《배달신보》발행인이며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의 삶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삶으로 되게 해주시고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빛내여주시였다. 재능있고 명망높은 음악가 윤이상선생도 그 품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을 걸으며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었다.

이밖에 림창영과 차상달, 선우학원, 배동호를 비롯한 수많은 해외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을 한몸에 받아안고 북과 해외의 련대실현과 민족대통일전선의 형성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며 자기들의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고 영 식

최홍희선생 (가운데)

나라가 통일될 그날은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숙원이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바라는것이 통일이고 또 그만큼 알고싶은것도 통일의 날이다.

통일은 언제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속에 품지 않아본 조선사람은 없을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쯤 통일될것이라고 제나름의 예측도 했고 통일에 대한 비관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과연 민족의 최대소원이 성취되는 감격과 환희의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맞히는 방법은 없을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이 물음에 수십년전 명쾌한 해답을 주신분이 계시니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주체89(2000)년 8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을 만나주시였을 때였다.

그때 한 언론사대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뜻밖의 질문을 드렸었다.

《국방위원장님, 통일의 시기가 언제쯤 될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남조선언론사대표들은 모두 흠칫 놀랐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즉석에서 예언을 바라는것과도 같은 일종의 무례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사실 반세기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루지 못한 조국의 통일이 언제 된다고 그 누가 꼭 찍어서 결론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려운 질문도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우선우선한 표정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통일시기는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다. …

순간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실가 하고 마음을 조이던 남측대표들의 얼굴마다에는 경탄의 빛이 일었다.

알고보면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 하거늘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통일의 시기를 한마디로 천명해주셨으니 그들이 받아안은 감동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다.

참으로 조국통일의 가장 곧바른 길을 다시금 밝혀주신 명해답인것이다.

그때로부터 20여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뜻깊은 교시는 겨레가 가는 통일진군길에서 계속 높이 울리고있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며 통일발걸음을 드높이고 있다.

김 성 숙

단상

졸 업 작 품

《래일 18시에 우리 통일역에서 만나자요.》

어제 저녁 대학정문을 나서며 정순동무는 출퇴근길에 자주 지나게 되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대학졸업을 앞두고 졸업작품창작과 관련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던 끝에 우리는 전형적인 중간양각의 부각형식을 구현한 평양지하철도 통일역의 부각작품들을 참고해보기로 하였다.

오래지 않아 평양미술대학 조각학부를 졸업하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졸업작품은 말그대로 자기의 예술적재능과 실력을 스승들과 부모들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계기가 아닐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준비끝에 통일역을 찾게 되였다.

과연 우리가 찾은 통일역의 부각작품들은 하나하나가 내용과 형식이 독특하고 세련된 명작들이였다.

매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속에 깃든 창작가의 고뇌와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려고 애쓰고있는 나에게 정순동무가 문득 이런 말을 하였다.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마치 펄펄 끓는 심장의 피를 쏟아놓은것 같지 않아요? 이것 보세요. 항쟁의 거리에서 기발을 쥔 청년대학생의 억센 두손, 치마폭에 돌을 가득 담은 녀대학생의 불타는 눈동자.》

격앙된 심정을 토로하는 그의 말을 듣느라니 문득 조국통일과 잇닿아있는 항쟁의 거리에서, 감옥에서, 형장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 남녘의 항쟁용사들과 통일혁명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우렷이 안겨왔다.

부각작품들에 비낀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읽어가던 우리들의 눈앞에 나어린 소년의 모습이 안겨왔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걸음을 옮기던 소년이 문득 싸움터에서 쓰러진 통일애국투사를 형상한 부각을 자그마한 손으로 조용히 쓸어보는것이였다.

여느때 같으면 철부지어린이의 호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모습이였지만 그때는 마치도 우리에게 조국통일과 민족대단합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친 선렬들의 고귀한 생과 넋은 후대들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흘러들게 될것이며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철리를 새겨주는것만 같았다.

그렇다.

통일된 강토우에서 행복한 래일을 창조해가며 평화롭게 살고싶은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심장속에 저 부각작품들처럼 깊이 새겨지고있다.

심장속깊이 간직된 그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오늘도 유명무명의 통일애국투사들은 선렬들의 넋을 이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그 길에 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책임진 우리 새 세대들도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자.

바로 이것이 통일역을 찾은 우리가 새겨안은 소중한 의무감이였다.

조국과 민족앞에, 겨레앞에 굳게 다지는 새 세대들의 맹세였다.

그 길에서 꽃다운 청춘을 다 바친 선렬들처럼 굴함없이 꿋꿋이 싸워나갈 맹세를 담아 나와 정순동무는 우리들의 졸업작품을 조국통일주제의 조각작품으로 하자고 하였다.

외세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 민족끼리 화목하게 사는 통일된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떨쳐나선 이 나라 사람들의 모습들을 형상할 그 조각작품의 이름도 우리는 《통일의 광장에서 우리 만나자!》로 정하였다.

밤은 깊어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져가고 어느덧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여온 그 시각 나는 정순동무에게 보다 깊이있는 작품토론을 위해 이렇게 약속하였다.

《우리 래일 통일역에서 다시 만나자.》

강 춘 성